더민주 광주 서구을 양향자 전략공천…천정배와 대결 '관심'

북구갑은 보류…후보 재배치 등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

당무위 선거 업무 비대위 넘겨…김종인 공천권한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전략공천지역으로 선택한 광주 서구을에 영입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투입하기로 한 반면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 전략공천은 일단 보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비대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양 전 상무를 전략공천 한다"며 "우리당의 공천 1호 후보"라고 밝혔다.

양 전 상무는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상을 졸업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의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상무로 승진했다. 따라서 양 전 상무는 천 대표가 서구을에 예정대로 출마할 경우, 천 대표와 총선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 대변인은 또 광주 북구갑에 대해서는 "어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 여부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보류 의미가 강기정 의원 배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아니고 전략공천 대상 후보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도 이날 강기정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 "혼자 당을 지켜낸 공로를 알지만 광주 상황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한 일이 아니라 당 전체를 위해 한 판단"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국민의당 유력 후보를 상대로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영입인사를 포함해 다양한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결과 영입인사의 경쟁력이 낮게 나와 전략공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안을 찾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구갑의 경우 여러 대안을 찾고 있으며 '예비후보 재배치' 등을 통한 공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하게 한 지역구의 경쟁력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구에서의 당 후보의 경쟁력 등과 연관성 등도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 관련 당무위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임 대상은 선거 관련 당규의 제정과 개폐 및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20% 컷 오프와 비례대표 선출 조항 등 공천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의 공천혁신안을 손질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공천 재량권을 갖게 됐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표결 없이 만장치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권한 위임 시기는 '20대 총선일'까지다.

김 대표는 20% 컷오프 제도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까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개혁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 원안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번 비례대표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의 얼굴이 될 사람들로 앉혀야 당이 집권을 위해 준비한다는 인상을 줄 텐데 지금 제도로는 무척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비상한 상황인 만큼 그에 걸맞게 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신뢰를 갖고 협조해달라. 사심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권한을 넘겨줬다고 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식에 맞게 할 테니 비대위에 권한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더민주 광주·전남 후보 공개 오디션 현장 가보니

2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께 열린 공천심사'에 참석한 광주 서구 갑 박혜자·송갑석 후보가 공천관리위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PT로 자기소개·삼행시까지 등장

현안 해법 제시 신인도 현역도 '진땀'

인터넷 생중계·현장 방청

1명 7분 '보여주기' 비판도

"청년구직자를 일컬어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지난 29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께 열린 공천심사' 현장엔 긴장감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이번에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열린 공천심사는 인터넷 TV 생중계와 당원 방청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면접하는 공천시스템이다.

이날 첫 면접 대상자는 동구 오기형·이병훈 후보였다. 이들 후보는 3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개 면접 첫 순서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국제통상전문변호사로서 광주를 시민과 함께 동북아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낙마 이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동구를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후보는 파워포인트(PPT)를 이용, 공천관리위원(7명)과 방청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출마동기·정치소신·당선전략·의정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3분 발언이 끝나자 공관위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당정치 구조 속에선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후보 한 명당 7분씩 14분의 시간이 지나자, 타임 종료벨이 울리면서 면접대상자들이 교체됐다.

서구 갑 면접대상자인 박혜자·송갑석 후보가 단상에 서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술렁임이 일었다. 광주지역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 면접 후보로 나온 탓이다. 이들 후보는 3분 발언·공관위 질문 등을 마쳤지만, 시간이 남아 공관위원들의 개인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김가영 위원이 '초선으로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당에 남은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자 박 후보는 "시민의 요구는 수권정당이 되라는 것이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당이 더민주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며 "당을 떠나는 것은 2년 전 세월호 선장이 도망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향후 광주가 변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최정애 위원의 질문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하나의 정당만 무작정 지지하는 곳이 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원과 후보자간 이색 질문과 재치있는 답변도 잇따랐다.

북구 을 양삼승 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라는 공관위원의 기습질문에 '양삼승입니다. 삼승(예선·본선·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남재 후보는 '현재 더민주의 가장 시급한 정책 한 가지만 말해보라'는 질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예방하는 대북경제지원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형석 후보는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날 광주지역 공천심사는 5개 선거구에서 후보 13명이 참석,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엔 전남지역 7개 선거구의 후보 20명에 대한 공천심사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공개면접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한쪽에선 공정한 공천은 물론 국민의 궁금증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에선 한 후보를 7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었다. /이종행기자 golee@

노동회의소 설립·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국민의당 '9대 공정노동 공약' 발표

국민의당이 다가오는 20대 총선을 대비해 일자리 창출과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한 '9대 공정노동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사에서 안철수 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90%에 달하는 1700만명의 비조직화된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회의소(가칭) 설치 등 비정규직 축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노·사·정에 대한 제안 형식으로 발표된 국민의당 공정노동 공약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氣)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 9개이다.

장병완 의장은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장은 기업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는 해당 사업자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 기업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전체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계층격차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이번 '9대 공정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천정배 "호남 떠날 일 없다"

국민의당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당내 수도권 출마자들은 29일 긴급 제안문을 통해 "경륜있는 현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 수도권 바람을 일으킬 장수가 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호남 현역 수도권 차출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날 건강 이상을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 수도권 차출론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천 대표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천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은 호남정치의 부활과 복원"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호남을 떠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천 대표가 광주에서의 숙의 선거인단 공천 도입 등을 통해 혁신 공천을 실현하면서 수도권 차출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